

성당 사정을 잘 알고 미리 답사한 듯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7월 4일 (목) 오전 7시 20분경 신원미상의 외부 침입자가 들어 와서 교육관 2층 초등부 교사실과 중고등부 교사실 문 잠금장치를 파괴하고 침입하여 내부를 뒤진 흔적의 피해를 보았다. 성경에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마태오 21.13).”라고 기록되어 있는 신성한 기도의 집에 외부 도둑이 침투하였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매주 목요일 새벽 미사가 6시에 시작하여 7시 이전에 끝나고 교우들이 모두 돌아간 후 본당 직원이 출근하기까지의 공백시간인 7시 20분에 침입하는 치밀한 행동과, 초등부와 중고등부 교사들이 자체 납입하는 회비와 여름 방학 기간 본당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사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실행하는

수법을 보면 성당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으로 추정할 수가 있으며, 본당에 설치된 CCTV 녹화를 검색하여 보면 시간별로 준비와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범인은 대담하게 CCTV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면서 왼손에 손가방과 긴 우산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서 우산 속에 숨겨온 듯한 연장으로 두 교사실 문짝을 파괴하고 캐비닛을 뒤져 금품을 확인한 후 연장을 우산 속에 다시 넣고 유유히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나, 다행히 교사실에는 현금을 보관하지 않아 금전적 피해는 없었으며 외부인 침투로 두 교사실 방화문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파손되어 경찰 범죄 감식계에서 지문채취와 녹화 화면을 가지고 범인 검거를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수일간 서울대교구 내 여러 본당에서도 동일범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CCTV 카메라에 녹화가 되어 도난사건 예방을 위하여 타 본당에서도 이러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게 상호 정보교환과 범인색출에 협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본당의 당면 문제로 불순자나 도둑이 성전 등에 잠입하여 못된 행동을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본당의 예산과 인력문제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름 장마철 대비 본당 주위 환경 정리



시흥4동 성당 시설관리분과 소속 산하 단체인 ‘본당사랑봉사회’는 2019년 7월 8일(월) 회원 7명 참석해 여름 장마를 대비한 성전 옆과 교육관 옥상 잔디 깎기와 지하수 주변 세멘트 몰탈 위 화강암 재정리 놓기를 하였다. 봉사회원들은 일하기 전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작업 내용논의와 다음 달 회의 일정 선정한 후 이번에 새로 구매한 예초기 사용방법과 안전에 대한 설명서를 확인한 다음 길게 자란 잔디를 깎고 화강암이 흔들리지 않게 고르고 세멘트 몰탈을 잘 발라 정리를 하였다.

